

# 尹 “실패한 게임 아니라 예상보다 빨리 끝난 것”

### 현재, 탄핵심판 4차 변론 진행 김용현에 직접 질문하며 변론 “내가 군 병력 철수 지시” 주장 “게임 이유, 野 감시·비판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게임 핵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신문에 나서며 적극적으로 변론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실패한 게임이 아니고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현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구속 상태인 김 전 장관이 탄핵심판의 첫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대리인이 질문을 한 이후 김 전 장관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며 변론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어차피 계엄이란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포고령이 추상적이긴 하지만 상징적이란 측면도 있었다”며 “집행 가능성이 없지만 ‘그냥 놔둬서’라고 말씀드리고 놔뒀는데 기억나는가?”라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께서 평상시보다 좀 꼼꼼하게 안 보시는 것을 느꼈다. 대통령

께서 업무하실 때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법정을 찾는데 안 찾았다”고 대답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실현·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 놔두자했고, (포고령에) 전공의 관련 내용을 왜 집어넣냐 하니 이것도 경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다고 해서 저도 웃으며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나는가”라고 묻자 김 전 장관은 “말씀하시니까 기억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실패한 게임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변론했다.

윤 대통령은 “이것은 실패한 게임이 아니고 저도 빨리 끝날거라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났다”며 “그 이유는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하게 한 것도 있고 저 역시도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군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 정족수가 갖춰지면 그에 따라 계엄해제를 하겠다고 선 발표를 하기도 했다”며 “그렇게 해서 (비상계엄이) 끝난 거지 실패 원인이 무엇이나고 (증인에게) 묻는 건 다분히 어떤 의도를 갖고...(질문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국가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해서도 “계엄을 반대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줄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며 “기재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한다면 예산의 틀 안에서 한다는 취지로 밖에 보지 않을 수 없는가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비상계엄 선포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뿐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었다”며 “야당에 경고를 마무리해 봐야 소용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190명의 국회의원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빠른 시일 내 국회로 돌아왔다”며 “비상계엄 효력 발생 시각이 11시인데 새벽 1시에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막지 않았다는 걸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선옥 기자·뉴시스

## 공수처, ‘尹 내란 혐의 사건’ 검찰에 조기 이첩

### 서울지검에 공소제기요구 결정 윤측 “검찰 수사 협조방안 검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공수처는 23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요구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밝힌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인 28일을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여러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키고, 직권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으며,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공수처는 기존 국가수사본부와 검찰 수사 결과에 더해 공수처 자체 수사로 확보한 증거를 모두 종합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그간 윤 대통령과 공모하거나 지시를 받고 계엄 활동을 한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윤 대통령의 혐의를 구체화했다고 한다.

아직 공수처가 판단한 1차 구속 기한이 남아있는데도 사건을 미리 송부한 배경에

대해 이재승 차장은 “윤 대통령 측 변호사들이 접견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많은 시간을 빼앗았고, 헌법재판소 변론 기일에 출석한다는 사정을 들며 공수처의 강제구인과 조사 요구를 계속 거부했다”며 “조사가 안 되는 대처 상황을 길게 가져가 기보다, 기소를 해야 하는 검찰에 조속히 사건을 넘겨 검찰이 추가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게 사안 진상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되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시점에 이미 1차 구속 기한인 열흘이 지나기 전에 송부하기로 이미 협의가 이뤄진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이 차장은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요

구결정을 했지만, 아직도 공수처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공수처는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조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넘긴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향후 검찰 조사에는 협조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에는 협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수처의 조사 요구에 계속 불응으로 일관하던 윤 대통령 측이 태도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나온 것이다. 검찰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혐의 인부 등에 대한 유의미한 진술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뉴시스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23일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요구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고퀄리티(4K) 저렴한 가격 드론 촬영 편집**

**드론타임 DRONE TIME**

스포츠행사/축제/산업현장/호텔/펜션 학교/부동산광고·분양/지적도 선박특수촬영/생산시설/양식장 아파트/교회 웨딩/이벤트/(웹)드라마 등

**드론타임 010-5681-8084**

**분할 합병 공고 (채권자 이익 및 주권제한 공고)**

삼연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갑" 이라함)와 주식회사 대한아이엔비(이하 "을" 이라함)은 각각 2025년 01월 23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합병 제5302의2 내지 제5302의11 규정에 따라 "갑" 의 그 재산 (영업) 의 일부인 정보통신공사사업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 이 합병하고 "갑" 은 존속하기로 하였으며, "갑" 의 분할된 정보통신공사사업의 재산, 부채등 "갑" 의 정보통신공사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을" 이 승계하며 합병 제5302의9 제2항의 의거 분할된 재산만을 출자금으로 인정하고 "을" 은 출자금으로 출자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는 바, 이 분할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고 주주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가 바리며, 이의가 없으면 분할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을 공고 및 최고합니다.

2025년 01월 24일

(갑) 상 호 : 삼연정보통신 주식회사  
주 소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보문로2길 7, 3층  
대표이사 : 이수진

(을) 상 호 : 주식회사 대한아이엔비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남평로 44-12  
남평세베아파트 상가동 1층 101호  
대표이사 : 정수정

**삼일자원비축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지구계 정비) 안내**

한국석유공사는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동 및 낙포동 일원의 삼일자원비축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지구계 정비)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내용을 알립니다.

2025년 1월 24일  
한국석유공사

- 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삼일자원비축산업단지
  - 사업의 위치 : 여수시 낙포동, 신덕동 일대 및 인접해면
  - 변경내용 : (당초) 4,156,660.0㎡, (변경) 4,113,576.7㎡ (감 43,073.3㎡)
  - 변경사유 : 지적불부합 등으로 인한 산업단지 경계선 일체 정비
  - 사업시행자 : 한국석유공사
- 주민 열람기간 및 의견 제출
  - 공람대상 : 공회 산업단지 지구계 정비에 따른 계획되는 토지
  - 의견제출 : 지구계 정비에 대한 의견(토지 소유자 한함)이 있을 경우 서면 제출
  - 공람기간 : 2025.1.24. ~ 2025.2.12.(공고일로부터 20일)
  - 공람장소 : 한국석유공사 여수지사(여수시 낙포단지길 450)
- 관련 지번(총 62필지)
  - 여수시 낙포동 527, 529, 545, 548, 1264-37, 1360, 1362, 산49, 산70, 산104-1, 산105, 산106, 산107, 산108, 산109, 산114, 산121, 산181, 산181-3, 산181-5, 산182-1, 산188-1, 산201-6, 산234-1, 산312, 산315, 산333-3, 산338, 산339, 산347-2, 산352
  - 여수시 신덕동 137-2, 148-2, 162-2, 162-3, 162-4, 163-2, 164-2, 237-6, 242-2, 243-2, 254-1, 254-2, 254-3, 315-4, 316-1, 316-2, 317-4, 318-4, 331-1, 331-4, 332, 산21, 산23-1, 산26-4, 산26-6, 산29, 산48-4, 산58-3, 산61, 산63, 산67
- 자세한 관계서류는 공람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기간에 해당 토지 소유자는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한국석유공사 여수지사(☎061-688-87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론용암, 영희용암, 영임용암, 연화용암, 영주용암 태양광 발전시설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5항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 2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전소의 명칭  
사론용암, 영희용암, 영임용암, 연화용암, 영주용암 태양광 발전소
- 발전소 위치  
사론용암 - 전남 영광군 군남면 용암리 472-9, 481-1, 481-5  
영희용암 - 전남 영광군 군남면 용암리 472-2, 472-12, 472-13, 472-14  
영임용암 - 전남 영광군 군남면 용암리 472-1, 472-4, 472-5, 472-10, 472-16  
연화용암 - 전남 영광군 군남면 용암리 472, 472-1, 472-8, 472-11, 472-12  
영주용암 - 전남 영광군 군남면 용암리 472
- 사업 구역의 면적  
사론용암 : 약 7,868㎡, 영희용암 : 약 7,893㎡, 영임용암 : 8,502㎡, 연화용암 : 약 8,611㎡, 영주용암 : 약 1,512㎡
- 발전사업의 내용  
발전설비용량 : 영임용암, 연화용암, 영희용암, 사론용암 약 999kW, 영주용암 약 199kW  
사업개시예정일 : 2027. 01. 01  
사업운영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20년
- 발전사업신청자  
사론용암 : ㈜사론, 영희용암 : 김영희, 영임용암 : 천영임, 연화용암 : 정연화, 영주용암 : 김영주
- 의견제출기간  
2025년 01월 24일 ~ 2025년 01월 30일 (7일간)
- 의견제출방법  
메일 : hds3388@daum.net  
전화 : 061-323-5000  
팩스 : 061-323-6000

**광고문의**

팩스 : 062)519-0709

지통 : 062)519-0710

全南日報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받아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